

◆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송가 301장

1. 지금까지 지내 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 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피 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2.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3. 주님 다시 뵈 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
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 사철에 봄 바람 불어 잇고 찬송가 559장

1.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잇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집 즐거운 동산이라
2.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 잇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3.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식구가
한상에 둘러서 먹고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후렴 :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2026
추석
가정예배



추석 가정 예배 순서

2026년 9월 25일(금)

인도 : 신앙가장

추석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감사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목 상 시편 136:1~2 다 같 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 같 이

찬 송 지금까지 지내온 것 (301장) 다 같 이

예배기도 가족 중 말은이 가족 중 말은이

성경말씀 시편 23:1~6 (구p.818) 인 도 자

1.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2.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쉼 만한 물 가로 인도하시는데도다
3.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도다
4.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5.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6.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와 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말 씀 참된 쉼과 감사의 고백 인 도 자

공동기도 다 같 이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추석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 시간 동안 힘들 때나 기쁠 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까지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계획이 앞서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 송 사철에 봄 바람 불어 있고 (559장) 다 같 이

주기도문 다 같 이

참된 쉼과 감사의 고백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풍요로운 추석 명절입니다. 한 해 동안 묵묵히 각자의 삶의 자리를 지키며 달려온 걸음 위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명절이 되면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열매의 크기나 조건을 보며, 풍요의 기준을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증언하는 가장 복된 삶은 소유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을 통해 형편과 조건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이 무엇인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1.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시 23:1~3).

다윗은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합니다. 양은 스스로 길을 찾거나 맹수로부터 자신을 지킬 힘이 전혀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 양이 푸른 풀밭에 눕고 쉼 만한 물가에서 안식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선한 목자가 곁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아보면 지치고 불안한 날들이 있었지만, 주님께서 지친 우리의 영혼을 일으켜 세우시고 걸음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다는 뜻이 아니라,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선한 것으로 채우신다는 신뢰의 고백입니다.

2. 하나님은 내가 인생의 골짜기를 지나올 때 함께 하십니다(시 23:4).

때때로 우리는 외롭고 힘겨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홀로 감당해야 했던 삶의 무게와 막막함이 우리 앞을 가로막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4절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우리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지키셨고, 거친 세상의 위험 속에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 신실하신 돌보심이 있었기에 오늘까지 걸어올 수 있었습니다.

3. 하나님은 내 잔을 넘치게 하십니다(시 23:5~6).

5절에서 다윗은 주께서 상을 차려 주시고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주님은 광야와 같은 삶 한가운데서도 우리를 존귀하게 맞아 주시고 은혜의 식탁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 앞에 놓인 소박한 밥상, 평범하게 숨 쉬는 하루, 내 걸을 지켜주는 소중한 인연들과 일상의 안식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어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의 부족함보다 하나님의 채우심을 바라볼 때, 우리의 입술에서는 감사의 찬양이 넘쳐나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며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지나온 모든 날들이 주님의 은혜였듯이, 앞으로 마주할 날들도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번 추석,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합시다. 주님이 주시는 참된 쉼을 누리며 깊은 감사의 고백이 삶의 자리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